



6장

영적인 완전과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제 6 장

영적인 완전과 성소에 들어가는 경험

영적인 미숙과 영적인 성숙의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날 신자들이 성소와 대제사장 직분을 이해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영적 미숙이다.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기본 진리들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사람을 분별력이 없는 영적 난쟁이로 만들어 버린다. 영적으로 완전한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빛과 은사,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을 땅에서 돌아나는 가시와 엉겅퀴로 비유하였다. 이들은 악인들로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저주와 불사름을 당하지만 채소를 내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고 그는 기록하였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경험 속에 살고 있는가?

바울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선한 행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섬김 등에 대한 부지런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의 소망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확정하신 것이며 이 기업의 소망을 얻으려면 피해 도망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 앞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성소에 들어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의 소망을 받기 위해 피하여 가는 사람들은 성소의 휘장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경험을 한다.

- A. 히 6:1~8, 영적인 미숙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라
- B. 히 6:9~12, 양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삶
- C. 히 6:9~20, 우리의 기업의 소망은 성소 안에 있다

A. 영적인 미숙에서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감(6:1~8)

1.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도의 초보를 버리고 - 바울은 젖이나 먹는 영적 미숙아 같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도의 초보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젖이나 먹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버리라는 것이다. 이들은 아직 죽은 행실 가운데 있었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 (5:13)하므로 거듭나지 못하고 죄로 죽은 행실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미숙아로서의 죽은 행실은 회개하여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했다.

신앙은 공언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 들은바 말씀을 안약으로 삼아 선악

을 분별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2.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도의 초보 - ‘말씀의 기초적인 원칙들’ 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① 침례들 - 침례가 복수로 사용된 것은 아마도 침례요한의 물의 침례와 오순절 성령의 침례를 함께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침례가 기독교 예식의 기초 기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막 1:8). 침례요한의 물의 침례는 죄를 버리는 회개의 침례 (막 1:4; 눅 3:3; 행 13:24; 행 19:4)였다. 초대 교회는 침례를 받을 때 온전히 옛 생애가 죽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가 즉시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 초대 교회는 물에 담그는 ‘침례’ (헬, 밥티조: ‘물에 담그다’, ‘완전히 짓게 하다’)를 행하였다. 현대 교회들이 ‘뿌릴 세’ 자를 사용하여 ‘세(洗)례’ 라고 지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당 ‘담글 침’ (浸)자를 써서 ‘침례’ 라고 해야 한다.

② 안수 - 안수의 상징적 행위는 ‘축복과 거룩한 직분을 위한 성별’ 을 의미했다(창 48:9~14; 민 8:10, 11; 신 34:9).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행 8:17, 18; 19:6), ‘병자를 고칠 때’ (막 16:18), 또는 ‘거룩한 직분을 위임할 때’ (행 13:3) 안수를 했다. 안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행하는 일이므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야 했다.

③ 죽은 자의 부활 - 영혼의 부활이 아닌 전인적(全人的)인 부활(고전 15:42, 51-52; 살전 4:16)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닌 완전한 육신을 가진 전인적인 부활이었다(눅 24:39; 요 20:27).

(1)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오해 - 기독교계의 보편적 신조로 수용된 영혼 불멸사상은 육신이 죽을 때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 혹은 지옥에 간다고 믿는다. 재림 때의 몸의 소생은 심판과 상급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죽은 자의 영혼은 살아 있거나 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 로다” (시 146:4)는 말씀과 같이 사람 자체가 흙으로 돌아가 생명의 도모가 사라지는 것이다.

‘영혼’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신앙관과 내세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이다. 성경은 영혼이 불멸하는 존재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하는 존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몸과 분리해 존재할 수도 없으며 다만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로서 ‘전인’ (全人)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사람이 지음을 받을 당시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보라.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 2:7).

흙 + 생기 = 생령

“생령”의 히브리어는 네페쉬 하야 이다. 우리말의 ‘생’은 ‘살아 있는’ (히, 하야)을 의미하고, ‘영’ (히, 네페쉬)은 ‘숨쉬다’라는 동사 ‘나파슈’에서 나온 명사이다. 두 단어가 결합되어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 (a living being)라는 의미에서 ‘생령’이라 불렀다. 성경에서 ‘생령’은 전체로서의 한 인간(the man as a whole)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생령’은 ‘숨쉬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다. 또한 ‘영혼’은 흙(육신)과 생기가 결합된 전인적(全人的) 단일 생명체이다.

많은 철학적 사고를 지닌 신학자들은 “생기” (창 2:7)를 ‘영혼’과 동일하

게 보는 오해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생기는 단지 ‘생명의 호흡’ (히, 니슈 맛 하임: ‘호흡’ 을 의미하는 ‘네쉬마’ 와 ‘살아있음’ 을 뜻하는 ‘하이’ 의 복수형 ‘하임’ 이 만나 ‘생명의 호흡’ 이 됨)이다. 즉 코로 들이마시는 ‘살아있는 호흡’ 인 것이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육신에 생명의 작용을 일으키는 ‘호흡’ (창 7:22; 신 20:16; 수 10:40, 11:11, 14; 삼하 22:16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흠(육신) + 생기(생명의 호흡) = 생명(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존재)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체는 완전했으나 생명은 없었다. 그때 개성적이지요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호흡하는 지적 존재가 되었다. 인체 기관의 각 부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마음의 지각 등 모든 기관들이 각각 그 활동을 시작하였고, 모두가 다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개성적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총명과 힘을 주셨다.” 101)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형체’ + ‘호흡’ = “생명” 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형체에 생기가 들어가 심장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활동을 하고 마음의 지각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육체’ + ‘영혼’ = “생명” 이 아니라

‘육체’ + ‘생기’ = ‘생명체로서의 영혼’

그리스 철학의 영향아래 ‘영혼불멸’ 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

101) 증언보감 3권(Ellen G. White, Testimony Treasures, Vol. 3), p. 262.

나의 단일체로서의 전인(全人)을 영혼(생령)이라고 하는 논리는 생소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 “생령” (히, 네페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적절한 번역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단어는 성서에 무려 754회나 사용되었고 그중 119번은 ‘생명’ 으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반 이상이나 ‘영혼’ 으로 번역이 되어있는 것 역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이 ‘영혼’ 으로 번역된 것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영혼’ 이 마치 사람의 육신을 떠나서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불사(不死)하는 존재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하지만 왕상 19장 4절에서 엘리야가 “오 여호와여 … 내 영혼[네페쉬]을 취하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고 “오 여호와여 … 내 생명[네페쉬]을 취하옵소서” 라고 번역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 단어(네페쉬)가 ‘영혼’ 말고도 “생명” (창 9:4; 출 4:19; 수 2:14 등), “사람” (창 12:5; 14:21; 수 20:9; 렘 43:6 등), “목숨” (창 12:13), “생물” (창 1:21, 24; 2:19; 레 11:46 등), “죽은 자” 혹은 “죽은” (레 19:28; 민 9:6, 7, 10 등), “자신” 혹은 “스스로” (레 11:43; 왕상 19:4; 사 46:2 등) 등 기타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될 수 있기에 필자는 많은 경우에 ‘영혼’ 이라는 말보다는 ‘생명’, ‘사람’ 등의 올바른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흠과 하나님의 호흡이 합쳐진 ‘생령’ 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창조의 원리로 볼 때 영혼은 본질적으로 육체와 단일체이며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비물질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림의 때에 받는 의인의 상급은 “신령한 몸” (고전 15:44)의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영혼)이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질에는 불멸이 없다. 반면에 하나님께만 불멸의 속성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 즉 불사(不死, 헬라어 ‘아다나시스’)성이

있다고 증언한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 (딤페전 6:16)

인간의 본질에는 불멸 즉 ‘불사’ (不死)가 없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불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수여해 주시는 은혜이다. 반면에 악인은 자신의 죄의 결과와 심판으로 죽음에 처해진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겔 18:4)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 10:2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 4:1)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시 104:35)

④ 영원한 심판 - 모든 사람은 심판아래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 (9:27)다. 다만 믿는 자는 심판에 처해지지 아니한다(요 5:24).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요 5:29). 각 사람의 운명은 그 삶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결정하신다. 악인들을 위한 심판은 1,000년기 끝에 집행되지만 지금은 하늘에서 ‘조사심판’ (계 14:6, 크리스스)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이다. 지금은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 22:11)는 선고가 각 사람에게 내려지려 하는 때이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 우리는 이상과 같은 기본 원리들 너머의 깊은 진리들을 이해하고 영적 성숙, 영적 완전에 나아가야 한다.

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 없는 품성의 완전에 나아가야 한다.

“품성의 완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도성의 진주 문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불완전함을 가지고 그 도성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다면 하늘에는 곧 제 2의 반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²⁾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살전 5: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② 육체의 완전이 아닌 죄의 용서를 통한 품성의 완전

“비록 우리가 육체의 완전성은 주장할 수 없으나 신앙적인 영혼의 완전성은 가질 수 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치르신 희생을 통하여 죄들은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¹⁰³⁾

3.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 - 영적인 완전(성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4.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102) 설교와 강연 2권(Ellen G. White, Sermons and Talks, Vol. 2), p. 294.

103) 가려 뽑은 기별 2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2), p. 32.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내세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맛보았다. 그러나 더러는 변절하여 떨어져 나가기도 하였다. 아마도 이들은 유대교로 귀의하거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배도했을 것이다.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어째서 회개케 할 수 없는가? 하나님 편이 문제인가, 사람 편이 문제인가? 사람 편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동안’ 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러 영어 번역에서 같은 뜻을 취했다(“they are crucifying the Son of God”, NIV; NRSV; DBY; DOUAY). 원문의 헬라어 ‘아나스타우론타스’ 는 ‘십자가에 못박다’ 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 ‘아나스타우로오’ 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태로, 현재의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 ‘치욕을 드러내다’ 라는 의미로 원문에는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왜 성령께서 회개케 할 수 없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치욕을 드러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중한 죄인은 하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준비하신 방법을 멸시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을 보이” (히 6:6)는 자이다.”¹⁰⁴(부조, 580).

7.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밟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 -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비유된다(마 13:18-23).

자주 내리는 비 -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모두에게 비를 주시고 같은 사랑을 주신다. 양자가 모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장성한 열매를 내는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

채소 - ‘풀’ 을 의미한다. 스가랴 10장 1절에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고 하셨다.

가시와 엉겅퀴 - ‘나쁜 품성의 열매’ 를 의미한다. 창세기에서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야기된 저주의 산물이었다(창 3:17-18). 가시와 찔레는 악인들(겔 2:6)을 상징했다.

B.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삶(6:9~12)

9.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104) 부조와 선지자(Patriarchs and Prophets), p. 580.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가시와 엉덩퀴를 녀으로 심판받을 자들보다 아직은 저들에게 기회가 제공되고 있었다. 아직 완전한 배도의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들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전히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회개하여 용서받을 수 없다.

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거나 속일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쏟아 부은 사랑,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주께 하듯 섬기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말(말 3:16)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기억하신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 10:32)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 25:34~36)

11.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진지함을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더욱 소망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안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12.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 바울은 앞의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행위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섬김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의 더 오래된 근원으로 올라가 믿음과 오래 참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상기시킨다. 그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100세가 되도록 오래 참았고,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었다(롬 4:19-20).

C. 우리의 기업의 소망은 성소 안에 있음(6:13~20)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15.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에는 약속과 맹세가 나타나 있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창 22:16-17).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다.

복주고 복주며 . . .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 이러한 동사의 반복은 강조와 다짐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강조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맹세는 서로 의견이 대립될 때 그 의견의 최후의 확증을 위하여 행해진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이것은 후대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다.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다음 두 가지도 소망의 근거가 된다.

- ① 기업에 대한 약속
- ② 그 약속의 보증인 맹세

이 두 가지는 약속의 소망을 얻으려고 전력을 다해 피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피하여 가는 우리 - 우발적인 살인자가 보복을 피하여 젓 먹던 힘을 다 하여 도피성(민 35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죽음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제단 뿌를 잡은 관습(출 21:13, 14; 왕상 2:28-34)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 죄의 삯은 무엇인가? 사망이다. 사망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는가? 사단이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사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향해 도망한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회중: “그리스도 안이다”] 누가 우리의 도피성, 즉 피난처인가? [회중: “그리스도이시다”] 누가 우리의 도피성인가? [회중: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 [회중: “사단이요, 사망이다”] 우리가 우리의 도피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는 건드릴 수 없고 만질 수 없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알 수 있다.”¹⁰⁵⁾

19.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대제사장이 계신 성소는 죄인의 도피성이다. 우리의 입장이 아무리 절박할지라도, 율법의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을 때에라도 성소 안에 계신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의 보장이 된다.

13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된 약속의 기업과 보증의 맹세를 열거한 다음 바울은 그 기업의 소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성소 안으로 피하라고 말한다. 기업의 소망을 얻는 방법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9절부터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는 방법과 확실성을 설명한 다음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은 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귀납법적인 결론을 내린다.

105) A. T. Jones, 1893 General Conference Daily Bulletin, No. 10, p. 119; 셋째 천사의 기별(충북: 삼성 아가페출판사, 1992. 에서 재인용).

3·4장과 6장의 대조

- ① 바울은 앞선 장들(3-4장)에서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고 향하여 가는 자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 해야 할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결론을 지었다.
- ② 다시 바울은 본 장에서 약속의 기업을 받을 자들은 소망을 얻으려고 달려가 휘장 안으로 들어가라는 결론을 짓는다.
둘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다루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언약은 새 언약이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새 언약 하에서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휘장에 대한 용어 이해]

- ① “휘장”을 뜻하는 헬라어 ‘카타페타스마’ (katapetasma)는 신약 성경에 6번 나온다(마 27:51; 막 15:38; 눅 23:45; 히 6:19; 9:3; 10:20). 이 중 3번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찢어진 휘장에 적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마지막 크신 제물이 드러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⁰⁶⁾
- ② 나머지 3번은 모두 히브리서(6:19; 9:3; 10:20)에 기록되었다. 이 중 9장 3절에서는 “둘째 휘장”이라고 특별히 묘사되었다. 이곳은 지성소를 가리킨다.
- ③ 70인역에서는 ‘카타페타스마’ (katapetasma)¹⁰⁷⁾가 다음 세 가지로 사

106)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165.

107)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성경주석, 13권(Seventh-Day Adventist Bible

용되었다.

- (1)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출 26:31, 36:37; 민 3:26)
- (2) 장막문의 휘장(출 26:37, 36:37; 민 3:26)
- (3) 뜰의 문을 위한 휘장(출 38:18)

이처럼 70인역 성경에서는 ‘카타페타스마’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둘째 휘장’, ‘성소 앞 장막문 휘장’, ‘뜰의 문을 위한 성막 앞 휘장’ 등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④ 그러나 70인역에서 “휘장 안에” (에소테론 투 카타페타스마토스)라는 말로 씌었을 때에는 네 번 모두 다 지성소를 가리켰다(출 26:33; 레 16:2, 12, 15).

⑤ 위에 살펴본 것에 의한 결론은 단지 “휘장 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소인지 지성소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히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둘째 휘장”에 서수가 사용되어 지성소임을 명백히 한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휘장 안” (6:19)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김상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막, 성소, 지성소 앞에는 모두 “휘장”이 있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등의 서수가 없이 그냥 “휘장”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한 장소를 가리키기보다, 그 모든 “휘장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 . . 예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곧 “새롭고 산 길” (10:20)이 되셨다. . . . 그가 의도했던 바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 앞으로 즉각적이고, 자유로우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

Commentary)(서울: 시조사, 2001), p. 536.

다”는 것이다.” 108)

- ⑥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본 절의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경험은 연속적인 경험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이미 열어 놓으셨지만 승천 후 성소 첫째 칸에서 봉사 하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경험 속에서도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늘 지성소에서 완성하실 일을 위해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바울당시에 예수님께서 즉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필자는 이해한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히 6:20)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에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된다. 거기에 치러지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 109)

“그리스도의 봉사가 두 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늘 성소에서 각 봉사마다 일정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는 것처럼 이 지상의 예표적

108) 김상래, 또 기록되었으되(서울: 시조사, 1990), pp. 84~85.

109) 각 시대의 대쟁투(Allen G. Whit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p. 489.

인 봉사도 매일의 봉사와 연례적인 봉사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고 각 봉사에 성막의 한 칸 씩이 바쳐졌다.” 110)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억지 주장들]

- * 역사적으로 앨비언 포스 밸린저(Albion Foss Ballenger)는 십자가를 실제적인 대속죄일이라고 주장하였다.
- * DM. 캔라이트(Canright)는 예수님이 1844년이 아닌 승천시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주장하였다.
- *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는 1979년 10월 27일, 호주의 아본데일 대학에서 온 초청 교수로서 그 당시 퍼시픽 유니언 대학(PUC) 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재림 평신도 공개 토론회(the Association of Adventist Forums)의 한 지부 모임에서 “조사심판: 신학적 이정표 혹은 역사적 필요성?” 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모임에서 포드 박사는 예언 해석에서 우리가 적용해온 연-일 원칙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고, 다니엘 8:14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성소 정결의 어학적 연관성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또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자마자 하늘의 지성소(Most Holy Place)로 들어가셨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포드에 따르면, 대속죄일은 히브리서의 논증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도는 갈바리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일을 욥 킵푸르의 원형으로 묘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시에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그는 말한다.” 111)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10) 부조와 선지자(Ellen G. White, Patriarchs and Prophets), p. 357.

111) 하홍팔 역, 윌리엄 G. 존슨 저, 히브리서(풍요한 생애를 위한 성경 확대경)(서울: 시조사, 1999), p. 210.

이 땅의 제사장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도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를 위하여” (5:2)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대제장직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된 것이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 완성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안식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의 휘장 안(은혜의 보좌)에 들어가는 경험이 들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때 도달되는 것이다. 오늘 현재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영적 경험을 누릴 수가 있다.